

수산분야 현안을 듣기 위해 유통업계와 소통

-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, 노량진수산물시장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-
- 6월 1일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릴레이(Relay) 간담회 이어가

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일(금)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인과 판매상인 등 18명과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“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지 수산물을 가장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일념으로 노량진수산물시장을 ‘도심 속 바다’로 느낄 수 있는 수도권 명소로 일구어 주신 데 감사드린다”라며, 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남·제주·전남·경북 등 권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,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간다.

이와 관련, 송 차관은 지난 6월 1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했으며, 6월 8일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해 6월 중 온·오프라인 유통업체,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구도형 (044-200-5440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혜 (044-200-5441)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최장원 (044-200-5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정 (044-200-5803)